

社 說

대학언론의 역사적 금지와 고뇌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 개관에 부쳐

지난 11월 6일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이 새 사옥 개국식을 가졌다. 우리 모두는 뿌듯한 성취감과 축하하는 듯한 축제의 기분을 함께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이나 대학언론의 위상에 대한 물음과 성찰 또한 컸다.

대학언론은 그동안 민주, 정의, 자유의 깃발 아래 오직 필봉을 통하여 대학문화 창달하고, 국가와 사회의 파수꾼이 되며, 학문과 진리의 토론했다. 외롭지만 힘차고 고달프지만 보람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유산의 서술과 위업의 계승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때론 기성언론이 길잡이로 침묵에 익숙하고 감정을 울림만 두드리고 있을 때 대학언론의 목소리는 국가와 사회를 깨우치고 잠들었던 민주의 여명을 열었다.

그같은 대학언론의 역사의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대학언론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운동권적이지(?)라든지, 흑백이론적 필법, 아카데미즘이 사라진 저널리즘과 참여주의의 목소리만 대학언론에 담겨진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언론은 비판에 견뎌야 한다. 또 그것은 비판에는 수긍할만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의 소리만큼이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참여를 바라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혹 독자 여러분은 기사 하나 논단 한 편이라도 자기의 시각에서만 읽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숙한 내용을 읽기 전에 몇몇의 신문제목

만 보고 실소하여 신문을 폐기하지는 않은지? 자신이 원고정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열린 독자투고란에 자신의 견해를 한번이라도 써 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학언론 담당자들은 수많은 밤을 지새며 보나 내은 신문과 방송을 위해 고뇌하고 있음을 감히 과언이 아니다. 활자의 저변에는 나름대로의 애교와 역사적 사명감, 담담하고 현실의 다른 선택들이 접착되어 있다. 때로는 수업도 들어가지 못하고, 학점이 떨어지는 것조차 잊은 채, 그리고 그토록 과학상과 어울리고 싶은 갈증을 참아가면서 필법을 언론에 불사르고 있다.

물론 대학언론은 스스로의 부족과 뛰어넘지 못하는 높은 벽 앞에 절박한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많다.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신문, 독자나 시청자에게 더욱 밀착된 언론, 학문과 대학문화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간절한 바람, 역사와 더불어 숨쉬며 민족적 사명을 다하는 대학언론이 되고 있다.

이 시점은 대학언론의 전환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첨예한 비판만으로는 이제 그 소명을 다할 수 없다. 읽기와 오디오의 시대에서 시각과 비디오의 시대로 바뀌는 문화상황, 참여와 학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현실적 요구들이 이 시대 대학언론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이들을 해결하는데 모두가 애정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가장 큰 사람은 서로가 기대를 버리지 않는 일이다.

‘선거운동으로 공백상태인 학생회 사업’

최근의 학생회 선거풍토를 바라보며

요즈음 우리는 서울과 수원 양캠퍼스의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고조된 선거의 열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총학생회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선거제도로 돌입함에 따라 학생회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 또한 활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선거에 대비해 시위가 속출, 학생회가 거의 마비상태를 초래해 공동체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결과만을 중요시 한 나머지 파벌집착에 따른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현상마저 나타나 진정한 대학의 모습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문리대-정경대 등 거의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중 과반수 이상이 사퇴했으며, 특히 정경대의 경우 학생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서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거의 업무를 주관해온 총무부장이 선거를 이유로 사퇴해 결과보고 등의 마무리 작업과 평가작업, 이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캠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연대의 경우 출발 당시 7명의 집행부 위원 중 선거기간에 6명의 위원이 사퇴해 학생회는 거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또한 지난주로 예정되어 있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임후보자 유세가 연기되고, 중선위원의 사퇴설등과 더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더욱 한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난항들이 파벌집착에 따른 집단적 이기주의에 편승해 있다는 점이다.

84년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어떻게 부활된 총학생회는 부활 이후 현재까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 간에 일단의 ‘학원내의 민주화’와 사

회에 있어서의 ‘변혁’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불단면 민족현실’과 ‘사회변화’ 속에서 여전히 많은 역할을 수행 해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칫 과정보다 결과에 우선시 되어 기성 사회의 선거풍토가 오염되거나 나타나하는 우려가 과연 기우에 불과한가?

여기에서 우리는 몇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각 단과대학이나 총학생회 선거에 있어 전체 학생대중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겨우 과반수를 조금 넘는 저조한 투표율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내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투쟁에 있어 너무 학생대중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무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점들에 대해 자기반성도 없이 단편적 행정위주의 사고가 결국 선거 때마다 학생회 간부들의 사퇴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회가 몇사람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다보니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산 등의 마무리 작업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이로 인해 각 추진사업들이 차기 학생회로 이월되지 못하고, 길어야 1년이라는 임기유변식의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총학생회가 학생운동에서 자칫 나타나기 쉬운 ‘파벌싸움’을 연상케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원캠퍼스의 경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은 이러한 심정을 더욱 절제 한 행위였다.

선거는 학생대중 전체의 신성한 권리의 표상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단편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학생회 위원의 사퇴, 파벌싸움을 연상케 하는 불신과 반목들이 깨끗한 공정선거를 해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허구적 수치에 유실된 노동자 권리

현정권의 통계를 이용한 ‘임금억제정책’ 분석

I. ‘밀지는 장사꾼’ 노동자

‘밀지는 장사꾼?’ 라는 말은 이미 불문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적어도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밀지는 장사’에 길들여져 왔다.

올해도 1백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8.9%에 그친 반면에 소비자들이 상승률은 9월말 현재 9.0%로 나타나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력 재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밀지는 장사’를 한 셈이 되었다. ‘밀지는 장사’를 했다? 기 보다는 것은 이데올로기 승리와 노동운동탄압으로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올바른 것이다.

이와같은 노동자 생계의 악순환은 내년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이승만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한 91년도 경제운영연계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의 기본골자를 살펴보면 제2차산업비투자를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반면에 노동자들에게는 ‘내년도 물가안정의 관건이 임금수준에 달려있다’라며 근로자들은 기본임금 한자리수 인상을 감내해야 할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밀지는 장사’를 강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만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오를 것이고, 올들어 작년대비 22%이상 증발한 통화량(79년 한국은행통계에 의하면 통화량 10%증가에 물가가 6.9%증가)을 감안할때 내년 물가는 한자리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관철되는데 기여한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공권력을 이용한 물리적인 탄압과 ‘경쟁우위’의 주범이 노동자다’라는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내년의 임금투쟁을 대비하는 현정부로서는 물리적 탄압의 방법으로 범죄와의 전장전포를 마련해 놓음과 동시에 여러가지 통계수치를 동원하여 한

자리수 임금상승률의 근거확보에 급급하고 있다.

II. 정부노동통계의 허구성

‘제 폐에 제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 하반기의 집중된 단체협약과 내년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앞둔 정부는 자신이 쳐 놓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임금인상액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생산성임금제’의 멍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다.

‘생산성임금제’란 서방선진국들의 개방화된 노·사관계의 물적기반으로서 노동생산성 범위내에서 실질임금의 상승율이 책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명목임금상승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적용되었다. 즉 이러한 논리의 전제조건은 물가상승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만

성과 부가치 생산성을 분기별로 산정·발표해온 한국생산성본부(KPC)의 올상반기 생산성 산출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1/4분기 14.5%, 2/4분기 18.1%로 높은

그러나 유가상승률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오는 생산비증가 부담을 지게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자리수로 인상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본가들의 ‘노동



근절되어야 할 정권 편의적 통계정책 생산성·물가 반영된 정당한 몫 찾아야

있는 경우 즉 다른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한다.

실질 정부는 이러한 논리의 유포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매년 노동생산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생산성증가율이 이리할때 생산성 상승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정부측의 논리에 따르면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적어도 두자리수는 상승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가들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착안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임금억제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생산비 증가부담을 전가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발상은 자기가 쳐놓고 가는 길에서 벗어남을 위해, 이제는 생산성 상승률 산출의 기준인 생산성 지수마저 낮추려요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내총생산(GDP)산정액과 경제기획원의 생산지수, 소비자 지수, 상품지수, 산업생산지수 등을 이용해 분기별 지수와 연평균 지수를 부가치생산성과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해서 생산성지수를 산정해 내고 있다.

반면에 경제기획원에서는 부가치 생산성의 산출방식을 바꿔 생산성증가율을 낮추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획원에서는 지금의 산출방식으로는 생산성이 과대평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이의 해소를 위해, 현행의 ‘10인 이상 사업장 상품 종업원’로 되어있는 ‘노동투입량’ 지표를 임시·시 간제 노동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기획원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휴직상태의 노동자나 1주당 1시간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노동투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가치 생산성 지표는 현재보다 큰폭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정부의 임금통제는 통계조사대상 범위 10인 이상의 고용사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10인미만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임시·일용고용직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외됨에 따라 임금통제는 상당한 과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라는 지수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무시한채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편의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정부의 통계정책이 오히려 ‘조선총독(朝鮮總督)’적으론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고있다.

III.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요즘 간혹 TV광고를 보면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청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보다 실제 광고가 더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외국연예인이 등장한 ‘꽃들의 연가’의 광고는 제품의 질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도록 유도한 결과 예상 판매고의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6공화국 역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광고에 비견될만큼 대국민 ‘현혹작업’에 더욱 세련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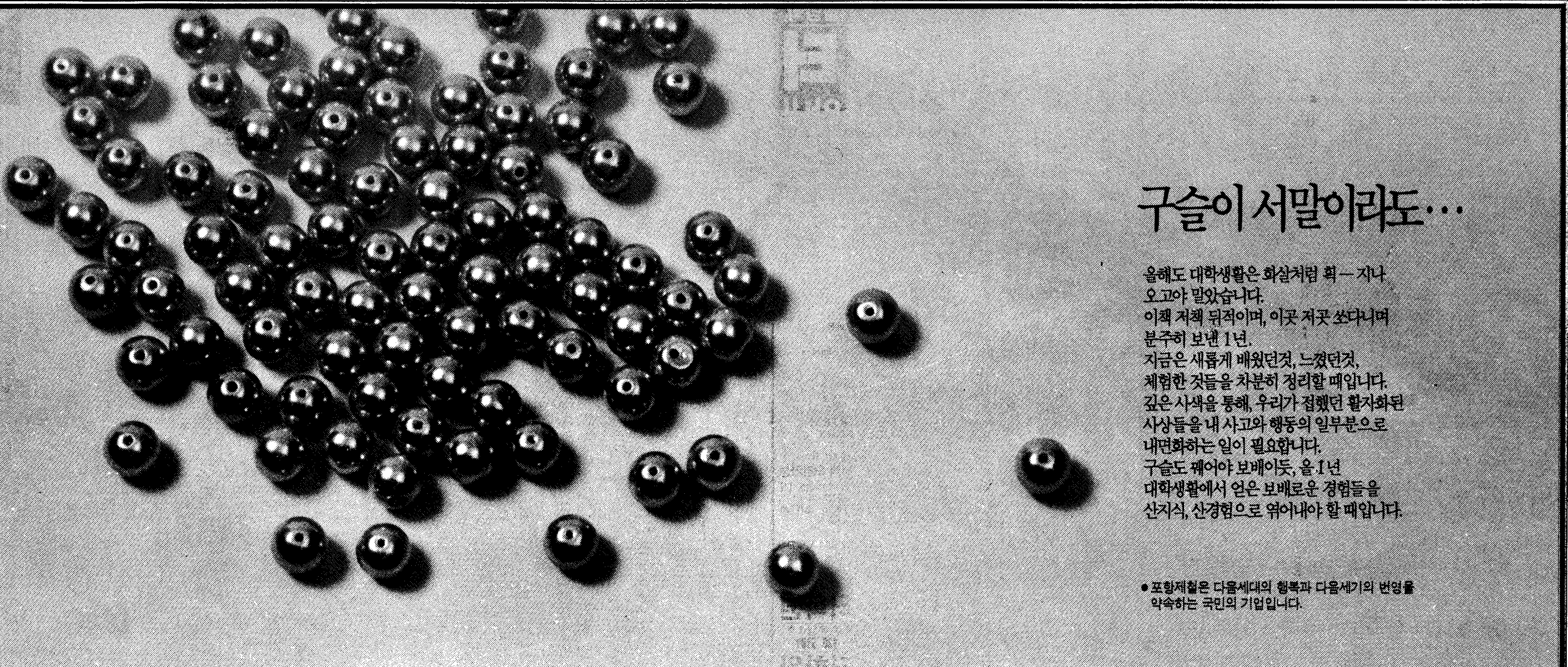
외형적으로 볼때 5공화국을 넘긴 6공화국은 노동정책의 본질은 여전히 폭압적임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5공화국보다 노동자투쟁수치가 약 3배로 증가한 사실로서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6공화국은 폭압적인 노동통제정책을 허구적인 통계자료로 포장하고 있어 국민의 저항감을 효율적으로 막고 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하반기 단체협약에서는 내년도 임금상승률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이 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진사항을 두고 자본가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허구적인 통계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정부의 치밀한 노동운동탄압에서 ‘지도력의 공백’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논리에 대해 임금에 노동력의 가액이라는 원칙하에 최저생계비 원칙을 견지하며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임금인상요구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최소한 생산성증가분만큼의 임금인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아나가기 합당하다.

(조진성 記者)



구슬이 서말이라도...

올해도 대학생활은 화살처럼 빠-자나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저처럼 뒤적이며 이곳 저곳 쏘다니며 분주히 보낸 1년. 지금은 새롭게 매웠던 것, 느꼈던 것, 체험한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때입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우리가 접했던 활자화된 사상들을 내 사고와 행동의 일부분으로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올 1년 대학생활에서 얻은 보배로운 경험들을 산지식, 산경험으로 위아래야 할 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